

<문제 1>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튀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공감’(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제한된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는 유태인 학살의 집행자로 법정에 선 아이히만의 진술을 제시한다. 검사는 아이히만이 유태인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증인의 진술을 듣고 그에게 유태인 학살을 저지른 이유를 묻는다. 이 때 아이히만은 유태인 학살이 단지 국가의 명령일 뿐이었으며 자신은 명령에 의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 주장하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가)의 아이히만은 유태인의 아픔과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 비공감적 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그는 공감에서 비롯되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나)의 시적 화자도 아이히만과 동일하게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 여기서 중요한건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의 여부예요. 주석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준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문도 놓쳤습니다. 상호 공감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시문 가의 주체는 아이히만, 나의 주체는 시적 화자이기 때문이죠. 나의 주체가 비둘기는 아니잖아요! 비둘기가 시적화자의 마음을 알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나)의 화자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가 종이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며 비둘기를 동정하고 있다. 비둘기를 날 수도 없고 공기를 마실 수도 없다고 말하며 동정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공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철저하게 일방적인 방식으로서의 공감이다. 화자는 오히려 자신의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의 심리를 왜곡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는 일방적인 감정이입이며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가)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터 속에 들어 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결눈질을 한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 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習性)도 웬만치는 변한다.  
비둘기가 노니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S(시적화자)	V(공감)	O(비둘기)
나는	알고 있는데	비둘기가 노니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상호적인 공감에 자꾸 집착해요. 발문에서 주체는 아킬레우스라고 분명히 명시해 주었는데.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을 공감시키는 주체이지 뤼카온에게 공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뤼카온을 죽이잖아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파트로클로스도 죽고 우리 아빠도 죽는다고 말한 건 아킬레우스지 뤼카온이 아니잖아요. 뤼카온은 살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게 보이는 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중적인 태도' 라고 서술을 해야 해요.

이와 다르게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상호적인 태도로 뤼카온의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다. (다)에서 아킬레우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뤼카온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설명한다. 그는 자신에게도 죽음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뤼카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진정한 공감을 보여준다. 또한 뤼카온이 아킬레우스의 말에 공감하여 창을 내려놓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호적인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의 아킬레우스는 (가)의 아이히만, (나)의 시적 화자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1,070자)

## 결론 : 발문을 잘 읽자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힌트.

2번 문제 발문에서 '가다라' 가 등장해 버렸잖아요 그럼 '나' 가 왕따이고 '가다' 가 한 패입니다 이 스킬 1번문제에 3가지 제시문이 등장했을때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문제 2〉‘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공감은 주체가 다른 대상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의 가치관과 태도에 따라 공감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주체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 공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는 제시문 (다)가 있다. (다)의 아킬레우스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뢰카온의 처지를 공감하며 그를 설득한다. 아킬레우스에게 뢰카온은 적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더라도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는 상대에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납득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뢰카온도 이러한 아킬레우스의 공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례는 주체의 뛰어난 공감능력이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돕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감에 있어서 주체는 그 공감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상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주체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주체가 직접 공감의 대상이 될 순 없기 때문에 이 때 상상력이 요구된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를 상상하여 나에게 이입함으로써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예로는 제시문 (라)의 심리학자 워딩턴 교수를 들 수 있다. (라)에 따르면 워딩턴은 어머니를 살해한 강도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며 자신의 폭력적인 본성을 깨닫고, 강도들을 용서한다. 그는 상상을 통해 강도 역시 같은 본성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공감함으로써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워딩턴이 충분한 상상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또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상상력 부족으로 인해 공감을 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례로는 제시문 (가)를 들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은 유대인 집단 학살의 집행자로 재판을 받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 이때의 아이히만은 유대인에게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의 처지에 대해 충분한 상상을 했다면 이러한 폭력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학살과 같은 폭력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상상했다면 행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감에 있어서 주체의 상상력 결핍은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1,056자)

아이히만 : 주체성 없음, 상상력 없음, 폭력 - 다 정답.

워딩턴 : 주체성 있음, 상상력 있음, 폭력 안함 - 다 정답.

1번에서 (다)독해를 잘못해버렸기 때문에 아킬레우스 틀려 버렸고.. 얼마나 억울해요. 1번 틀리면 2번도 같이 틀린단 말입니다. 연대는 1번과 2번을 반드시 연계해서 내기 때문에..